

{있다}의 활용 양상 변화 고찰*

정 경 재**

본고는 {있다}의 활용 패러다임이 겪은 형태음운론적 변화를 살펴, 변화의 과정과 시기, 동인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있다}는 15C에 ‘잇고, 이시니, 이셔’와 같은 변칙 활용을 하였으며, 근대국어 시기에 ‘이시니>이쓰니’, ‘이셔>이써’와 같이 자음의 변화(/ㅅ/ > /쓰/)와 모음의 변화(/ㅣ/ > /ㅡ/, /ㅓ/ > /ㅕ/)를 겪어 정칙 활용을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18C 문헌에 출현한 {있다}의 예를 전수 조사하여, 두 가지 변화 중 모음의 변화가 먼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자음의 변화는 반의어 {없다}와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있다}의 모음이 변화한 결과 {있다}와 {없다}의 활용형이 형태상 유사해진 것이 감염을 야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모음의 변화 동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음운사 연구가 더 정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핵심어: 있다, 없다, -었-, -겠-, 패러다임 평준화, 감염, 변칙 활용

1. 서론

현대국어에서 {있다}1)의 활용 패러다임은 형태통사론적인 측면에서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231)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본고에서는 국어사의 전 시기를 관통하여 다양한 활용 양상을 보이며 변화해 온 이 단어를 통칭할 때 오늘날의 어형대로 {있다}로 명명하기로 한다. {-었-}과 {-겠-}도 동일하다.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이는 {있다}의 품사 설정 문제와도 관련된 중요한 이슈였다. 반면 {있다}의 활용 패러다임이 지닌 형태음운론적인 면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데, 이는 그것이 어간 말에 자음을 지닌 용언이라면 보일 만한 일반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다}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잇고, 이시니, 이셔’와 같은, 다른 단어에서는 보이지 않는 단어 개별적인 변칙 활용을 하고 있었다.²⁾ 따라서 통시적으로는 {있다}의 활용 패러다임이 겪은 형태음운론적인 변화에 주목하게 된다.

{있다}의 형태 변화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후기 근대국어 시기의 언어적 특성을 개괄하는 자리에서(李賢熙 1993, 이현희 1994 등) 혹은 국어 시제 체계의 변화를 살피는 자리에서 {-었-}의 형태 변화를 다루면서(허웅 1982¹⁾, 허웅 1982²⁾, 최동주 1995 등) 함께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다. 이와 달리 {있다}(혹은 {-었-})의 형태 변화에 집중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이루어지는데, 宋喆儀(2002), 崔明玉(2002), 崔전승(2002), 高광모(2009), 崔전승(2016)이 그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하나의 형태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형태 변화 과정을 살피고 변화의 원인을 구명, 깊이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 문헌을 대상으로 {있다}의 형태 실현 양상을 정리하거나, 여러 문헌을 검토한 경우라도 {있다}의 형태 변화 양상 전반을 펼쳐 보여 주지 않고 일부 예문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독자가 논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행 시기가 비교적 명확한 다양한 고문헌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있다}의 형태 변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의 경우 실현 형태별 빈도를 제시하여 변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한다. 또한 국어사에서 다른 변칙 활용 용언들이 겪은 변화와의 비교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있다}의 형태

2) 이후에 {있다}가 포함된 구성에서 문법화된 {-었-}과 {-겠-}도 동일한 이형태 교체를 갖게 되어, 해당 변칙 활용에 속하는 형태소의 목록은 증가하게 된다.

변화가 진행된 과정과 변화 시기, 변화 동인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있다}의 활용 패러다임이 겪은 형태 변화(이시니>이쓰니, 이서>이씨)를 자음의 변화(/ㅅ/ > /ㅆ/)와 모음의 변화(/ㅣ/ > /ㅡ/, /ㅑ/ > /ㅓ/)로 나누고 두 변화 간의 선후 관계를 확인한다. 3장에서는 그중 자음의 변화가 발생한 동인을 확인하고, 4장에서는 모음의 변화 동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하고 남은 문제를 정리한다.

2. 변화의 시기와 진행 과정

오늘날 /ㅆ/를 말음으로 지닌 용언 어간은 ‘잇-’ 하나뿐이다. 이 단어가 /ㅆ/ 말음을 지닌 정칙 활용 용언이 된 것은 후기 근대국어 시기의 일로, 후기 중세국어와 전기 근대국어 시기에는 예문 (1), (2)와 같이 자음 어미 앞에서 ‘잇-’으로, 모음·매개모음 어미 앞에서 ‘이시-’로 실현되는 변칙 활용에 속하였다.³⁾

- (1) 前後로 서르 견주건댄 잇느니 므츄매 업서 비록 이시나 이쑤 아니며
滅히니 아래 이서 비록 업스나 업쑤 아니라 ㅎ니(以後前後相例컨댄 則
存者ㅣ 終無^ㅎ야 雖有ㅣ나 非有ㅣ며 滅者ㅣ 曾有^ㅎ야 雖無ㅣ나 不無
ㅣ라 ㅎ니) 《楞嚴 10:34a》

- (2) 重^ㅎ 者ㅣ 앞피 잇고 輕^ㅎ 者ㅣ 뒤헤 이시며 尊長은 안코 卑幼는 서
되 丈夫는 東의 이서 西上^{ㅎ고} 婦人은 西의 이서 東上^{ㅎ고} 行^넌마다
각각 長幼로써 次序^{ㅎ고} 侍者는 뒤헤 이시라(重者居前, 輕者居後,

3) 본고에서는 모음 ‘아/어’,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를 ‘모음 어미’, 결합 환경에 따라 소위 매개모음 ‘으/오’를 취하는 어미를 ‘매개모음 어미’, 환경에 따라 형태 변화가 없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자음 어미’라 칭한다. 다만 본문 중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 이때 ‘모음’은 음운론적인 개념으로, ‘모음 어미’뿐 아니라 ‘매개모음 어미’도 포함된다.

尊長坐，卑幼立，丈夫處東西上，婦人處西東上，逐行各以長幼爲序，侍者在後。) 《家禮 9:3a》

오랜 시간 단어 개별적인 변칙 활용을 유지해 왔던 {있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늘날과 같이 /ㅄ/ 발음을 지닌 정착 활용이 된 것일까. 15C {있다}의 활용형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겪은 변화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

(3) 잇고[잇고]	> 잇고[읷꼬] ⁵⁾	> 잇고[읷꼬]
이시니[이시니]	> 이시니[이시니]	> 있으니[이쓰니]
이셔[이셔]	> 이셔[이셔]	> 있어[이썸]
(15C 중엽)	(16C)	(오늘날)

자음 어미 결합형은 종성의 /ㅅ/가 음절말 불파화로 /ㅄ/와 변별되지 않게 된 16C 이래 오늘날까지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았으나, 모음·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ㅅ/에서 /ㅄ/로, 종성이 /ㅣ/에서 /ㅡ/, /ㅜ/에서 /ㅝ/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제 발생한 것일까.

{있다}의 모음·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은 17C까지는 예외 없이 ‘이시니, 이셔’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18C에 비로소 이전 시기에 확인되지 않던 개신형이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왔다(이현희 1994, 최동주 1995, 宋喆儀 2002, 최전승 2002, 고광모 2009, 최전승 2016).⁶⁾ 그러나 16, 17C 문헌에서 이미 다음과 같은 선구적인 예가 소

4) 대괄호 밖은 각 시기의 주된 표기형, 대괄호 안은 추정 발음을 표시한 것이다.

5) 이 시기 장애음 뒤 경음화 현상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견해로는 허용(1965: 334-5), 이기문(1978: 59)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각자병서와 ㅅ계 합용병서, 종성에서의 ‘ㅅ’의 음가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더 깊이 천착하지 않는다. 다만 본고의 예문 (18)에 제시한 것처럼 늦어도 17C에는 장애음 뒤 경음화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 확인된다.⁷⁾ (4)는 16C, (5)는 17C의 예이다.

(4) 가.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 四時佳興 | 사름과 흥가
지라 / 흥몰며 魚躍鳶飛雲影天光이샤 어니 그지 이슬고 <陶山
六曲之一 其六>

나. 何有何亡 (중략) 므스거시 이스며 므스거시 업스리오 흥야
《詩釋義 2b》

다. 즈식돌 니필 것도 나흔 거시 잇사 보내랴 <順天 9>

(5) 가. 문내 일긔좁노이다 괴별흐옵소서 날 곳고 장 지나시매 아므것
도 몰 어더 보내오니 이런 흥이 더 잇스림까 고평 아즈믹 유무
몰호오니 큰아기시미 유무 서 보내쇼셔 아므것도 업스와 녀느
청어 흥 갓 보내옵노이다 큰딕의서 대구 두 마리 보내시뇌이다
벼로를 뿌리고 왔더니 아므 아거나 주쇼셔 응냥이 주셔괴게 돈
흥나 보내뇌다 속절업시 드러와다가 아므것도 업서 나룻 □원
말 더괴서 흥 말 두 말 어더 가뇌이다 <郭氏 109>⁸⁾

나. 니던은 낭반이라 혹 잘 흥란 말이 이서도 종들이 심히 박디흥
야 길히 사름 더접흥듯 흥더라 《계축 상:14b》

6) 宋詰儀(2002: 222)에서는 (i)의 예를 들어 17C에 ‘이서’가 나타난 유일한 예라고 하였으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디지털 한글박물관 제공)의 컬러 이미지를 확인하면 명확하게 ‘이서’로 확인된다. (i)의 예는 (ii)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i) 오눈 안히 이서(在五倫之內) 《馬經 上:91ㄱ》 [宋詰儀(2002: 22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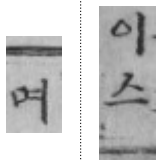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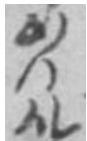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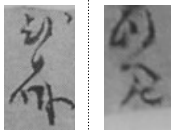

(ii) 오눈 안히 이서(在五倫之內흥야) 《馬經 上:91b》

7) 그 외에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고문헌 말뭉치에서 ‘잇시면’ 《계축 상:5a》⁹⁾이 확인된다. 그러나 영인본의 이미지를 보면 ‘이시면’에 알 수 없는 티가 묻은 것으로 보여, 본고에서는 ‘이시면’으로 판독하였다.



(i) 그도 연고 이(?)시면 귀하고 《계축 상:5a》

8) 판독은 백두현(2003: 621-622)을 따랐으며, 해당 책에 실린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잇스림까’로 판독하고 “있겠습니까?”로 현대역하였으며 별도의 주석은 달지 않았다. 또한 ‘흥이 더’에 대해서는 ‘흥이 어더’에서 ‘어’가 빠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4가)	(4나)	(4다)	(5가)	(5나)
				
<陶山六曲>	《詩釋義 2b》	<順天 9>	<郭氏 109>	《계축 상:14b》

(4가, 나)는 퇴계 이황의 저술로, {있다}의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이 ‘이시X’형이 아닌 ‘이스X’형으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4가)는 1565년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나)는 琴應璫의 발문을 통해 퇴계의 기록이 임진왜란 때 불에 타 후학이 지닌 전사본을 바탕으로 1609년에 간행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후자는 간행 시기가 17C이며 언어 사실은 16C의 것과 17C의 것이 섞여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17C의 예로 볼 수도 있으나, 퇴계의 또 다른 저술인 (4가)에서 이미 ‘이슬고’가 확인되므로 역시 16C의 언어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5가) 역시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의 예로, 17C 전기에 현풍 곽씨가 어머니인 진주 하씨에게 보낸 한글 편지이다. 다만 이 예는 ‘잇스오링까’에서 ‘오’가 누락된 어형으로 볼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잇스’에서 행이 끝나고 ‘링까’에서 새로운 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술-}에서 기원한 선어 말어미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4다)와 (5나)는 모두 {있다}의 모음 어미 결합형이 ‘이셔’가 아닌 단모음 /ㅏ/, /ㅑ/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4다)는 16C 후기에 신천 강씨가 딸인 순천 김씨에게 보내는 한글 편지로, 조항범(1998: 76)에서는 이를 ‘잇(有)+사’로 분석하였다. ‘잇셔’가 아닌, ‘잇사’로 나온다는 점에서 어미 ‘-사’가 결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⁹⁾ 그러나 ‘-사’의 다른

예와 달리 “-어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잇사’에 결합한 어미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발신자인 信川 康氏는 경상도 善山에서 태어나 결혼 후 주로 서울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항범 1998: 15-18), (4가, 나)와 함께 영남 지역어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다. (5나)는 필사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며, 현재 원본이 소실되어 《朝鮮歷代女流文集》에 수록된 축쇄 영인본만이 전해지고 있어 자형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17C 자료에 나타나는 {있다}의 개신형으로 인정해도 좋을지 분명치 않다.

상기의 5개의 예 중 (4가, 나)만은 {있다} 활용형의 변화를 보여 주는 의심할 수 없는 예라 할 수 있다. 다른 자료가 필사 자료인 것과 달리 (4가, 나)는 목판본이며, 한 명의 필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우연한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 즉 16C에 이미 영남 지역 일부에서는 {있다} 활용형의 형태 변화 중 모음의 변화(이시니>이스니)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있다}의 개신형이 중앙에서 간행된 여러 문헌에서 두루 확인되며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지적해 왔듯이 18C에 들어서의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행 시기가 비교적 명확한 18C 문헌을 대상으로¹⁰⁾ {있다}의 모음·매개모음 어미 결합형 전체를 확인하

9) 어간 뒤에 결합하는 ‘-사’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예를 확인할 수 있다.

(i) 출처 說法 마오 涅槃에 어서 드사 ㅎ리로다(我寧不說法, 疾入於涅槃。)《釋詳 13:58a》

(ii) 節女 | 너교디 아니웃 드르면 아버 주그리오 드르면 남지니 주그리니 내 죽사 ㅎ리로다 ㅎ야(女念不聽則殺父不孝。聽則殺夫不義。… 欲以身當之。)《三綱런던 烈:5》

10)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문헌 자료의 목록과 그 약호는 정경재(2015)의 [부록 1]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수정·보완되었다.

문헌명	간행년	수정 내용
陶山十二曲	1565	문헌 추가
詩釋義	1609	문헌 추가
註解千字文(1804 重刊本)	1752	중간본 표시
地藏菩薩本願經諺解	1762	간행년 수정
三譯總解(重刊本)	1774	간행년 수정, 중간본 표시

여 변화의 진행 과정이 문헌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있다}의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 18C

	172X	173X	174X	175X	176X	177X	178X	179X	17XX	계
이시X	257	145	309	318	383	308	151	336	71	2,278
이스X			1					41		42
이스X				10				2		12
잇시X	1									1
계	258	145	310	328	383	308	151	379	71	2,333

[표 2] {있다}의 모음 어미 결합형: 18C

	172X	173X	174X	175X	176X	177X	178X	179X	17XX	계
이서	116	70	53	158	130	72	46	186	13	844
이서								1		1
잇서	1			1						2
이쇼X	3	19	38	1				1	3	65
이슈X				1						1
이소X			1							1
이세라	3				3					6
계	123	89	92	161	133	72	46	188	16	920

曉諭繪音	1777	간행년 수정
御製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1)	1781	간행년 수정, 문헌명 수정
諭湖西大小民人等繪音	1782	간행년 수정
御製濟州民人繪音	1784	간행년 수정
蒙語老乞大	1790?	간행년 수정
捷解蒙語(重刊本)	1790	중간본 표시
御製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2)	1793	간행년 수정, 문헌명 수정
增修無冤錄諺解	1796	간행년 수정
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繪音	1797	간행년 수정

위의 두 표를 통해 18C의 예 대부분이 이전 시기의 활용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매개모음 어미 결합형: 약 97.64%, 모음 어미 결합형: 약 99.57%). 그러나 개신형 역시 비록 출현 빈도는 낮지만 특정 문헌에 국한된 우연한 형태가 아니라, 여러 문헌에 걸쳐서 두루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표 1]과 [표 2]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개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2음절 중성이 변화한 형태로,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의 ‘이스X, 이스X’와 모음 어미 결합형의 ‘이서, 이소X’에서 확인된다. 두 번째는 표기상 ‘ㅅ’이 중첩된 형태로,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의 ‘잇시X’와 모음 어미 결합형의 ‘잇서’에서 확인된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의 개신형의 예를 문헌별로 하나씩, 간행 시기 순으로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가. 周公의 聖으로ㅅ도 東에 居ㅅ신 일이 이스시고(以周公之聖으로 도 乃有居東之事ㅅ시고) 《常訓 25a》

나. 내 글로ㅅ 상소를 지어 밧티고 상검의 주선ㅅ미 저기 이스면 엇디 일오디 못ㅅ 일이 이스리오(以吾之文製疏以進 而少有尙儉之周旋 則豈有不成之事乎) 《闡義 2:50a》

다. 그거시 만드시 이슬 거시니(其物必在) 《種德 下:44b》

라. 中庸의 근본이 불과 홀노 이슬 제 삼가미니(中庸之本不過慎獨) 《續自省 33a》

마. 감격ㅅ물 아는 듯ㅅ미 이스니(若有知感) <楊州書 2a>

바. 경스를 비움도 이에 잇고 긴 명을 빌기도 이에 이스니(祝慶在此祈永在此) <諸道論 3a>

사. 或 身上에 찌라가며 다달니고 문 타인 흔적이 이스리니라(或沿身上에 有磕擦痕이니라) 《無冤 2:21a》

아. 물읏 사람이 형세 이스매 가히 부러 다치 아닐 거시며 복이 이스매 가히 누려 다치 아닐 거시며 《敬信 26a》

자. 무슴 타님 또 이슬고 <勸禪 5b>

고 있다. (6)에 제시된 9개의 문헌을 대상으로, {있다}의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 전체 중 개신형인 ‘이스니’형의 비율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이시니’형과 ‘이스니’형의 비율

문헌(간행년)	{있다}의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		계
	‘이시니’형 (%)	‘이스니’형 (%)	
御製常訓諺解(1745)	25 (96.15)	1 (3.85)	26
천의소감언해(1756)	153 (97.45)	4 (2.55)	157
종덕신편언해(1758)	94 (94.95)	5 (5.05)	99
御製續自省編諺解(1759)	42 (97.67)	1 (2.33)	43
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人等書(1792)	0 (0)	1 (100)	1
諭諸道道臣綸音(1794)	2 (50)	2 (50)	4
增修無冤錄諺解(1796)	132 (99.25)	1 (0.75)	133
敬信錄諺釋(佛巖寺版)(1796)	8 (17.78)	37 (82.22)	45
勸禪曲(1796)	2 (50)	2 (50)	4
계	458 (89.41)	54 (10.59)	512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8C 말에 간행된 문헌인 《敬信錄諺釋》에서는 {있다}의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 45회 중 ‘이시니’형은 8회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약 82.22%의 예가 개신형인 ‘이스니/이스니’형으로 나타난다. 즉 중앙어에서¹²⁾ {있다}의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의 변화(이시니>이스니)는 18C 중엽 이후 점차 확산되어서 18C 말경에는, 적어도

12) 익명의 한 심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앙에서 간행되었다는 것이 중앙어를 반영한 것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해당 문헌의 편찬에 참여한 화자의 언어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문헌의 언해에 참여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성명이 밝혀진 경우라도 행적이 분명치 않은 경우도 많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있다} 활용형의 모음 변화가 반영된 18C 문헌 중에는 《御製常訓諺解》, 《御製續自省編諺解》, <諭諸道道臣綸音>, <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綸音>과 같이 왕이 편찬에 참여한 경우가 있으며, 《孟子栗谷先生諺解》의 편찬자 栗谷은 경기도 파주에서 주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8C에 중앙어에서 {있다} 활용형의 모음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어에서는 꽤 확산되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¹³⁾

흥미로운 것은, {있다} 활용형의 2음절 모음에 발생한 변화가 {있다} 뿐 아니라 선어말어미 {-었-}과 {-겠-}에서도 발생한 것이지만, 두 선어말어미의 경우 18C 문헌에서 이러한 형태 변화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어말어미 {-겠-}은 18C에 여전히 형태 축약이 완성되지 않은 ‘-게ㅎ옛-/게ㅎ여시-’, ‘-게옛-/게여시-’ 등으로 나타나므로(고광모 2009: 127), ‘-겠-/게시-’로의 형태 변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빈도도 낮은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었-}의 경우 17C 중엽 이전에 문법화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되며(최동주 1995: 144), 출현 빈도도 상당히 높았다. 즉 이는 {있다}와 {-었-}의 변화 간에 속도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해당 변화가 {있다}에서 먼저 발생하였고 {-었-}이 그 영향을 받아 동일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었-}의 변화는 (8)과 같이 19C 문헌에서 비로소 확인된다.

(8) 가. 조회문이란 글을 지어스니 《한중록 3:69a》

나. 데군이 굴오사대 내 열일곱번 세상에 사대부의 몸이 되어 일즉
 빅성의게 포학하고 아전의게 혹독함미 업서스며(帝君曰 吾一十七世 爲士大夫身 未嘗虐民酷吏) 《南宮 5b》

{있다}와 {-었-}에서 나타난 변화 속도 차이는 최전승(2002), 고광모(2009)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최전승(2002: 58, 각주 27)에서는 《敬信錄諺釋》에서 개신형 ‘이스-’가 많이 확인되는 반면, {-었-}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고광모(2009: 134)에서는 《日東壯遊歌》 권1에서 동일한 경향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18C 여러 문헌으로 확장하여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함을 확인하였다.

13) 《敬信錄諺釋》과 같은 해에 간행된 《增修無冤錄諺解》의 경우 여전히 ‘이시니’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는 문어 자료가 지닌 보수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의 개신형의 예를 모두 제시하면 (9)와 같다. (6), (7)의 예를 통해 본 것처럼, 첫 번째 유형의 개신형은 여러 문헌에서 두루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개신형, 즉 {있다}의 활용형에서 표기상 ‘ㅅ’이 중첩된 사례는 18C 문헌 전체에서 (9)의 예 3개만이 확인될 뿐이다.¹⁴⁾

(9) 가. 丁이 잇시되 그저 壯티 아니호야(有丁只是不壯) 《伍倫 6:18a》

나. 別로 사람이 업스되 그저 일쪽에 혼 客人이 잇서(別無人只是早間有個客人) 《伍倫 6:31a》

다. 甞관 원년의 청쥬의 모반호는 재 잇서 잡혀 옥의 ㅁ득 호엿는 지라(貞觀元年靑州有渾者逮捕滿獄) 《種德 上:7b》

18C 문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유형의 개신형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이를 중철 표기로 보아 단순히 표기상의 문제로 이해한 경우(宋喆儀 2002)와 활용형의 자음 변화를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보아 {있다}의 형태론적 변화로 이해한 경우(崔明玉 2002, 최전승 2002, 고광모 2009, 최전승 2016)가 그것이다.¹⁵⁾

고광모(2009)에서 ‘잇시되, 잇서’ 같은 ‘ㅅㅅ’ 표기를 중철 표기로 보지 않은 근거 중 하나는, 앞서 살핀 모음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日東壯遊歌》 권1에서 ‘ㅅㅅ’ 표기가 {-었-}보다 {있다}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점이다.¹⁶⁾ 이것이 단순히 표기상의 문제라면, {있다}와

14) 본고의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으나 鄭承惠(2012)에서 전문을 제시한 18C 말 朝鮮通事의 한글 편지 두 편 중(논문에서는 19C 초 한글 편지 3편을 더 확인할 수 있음) 1798년 10월 18일 朴士正이 小田 幾五郎에게 보낸 편지에서 {있다} 활용형의 ㅅ 중철형이 하나 더 확인된다.

(i) 明春에 弔別 出來 時 넉가 오을지 僕 上去호여 凡事을 隋事 周旋호 道理가 잇서 야 호게 호여스오니

15) 崔明玉(2002)에서는 이를 /ㄷㅅ/를 표기한 것으로 본 반면, 고광모(2009)에서는 /ㅅㅅ/를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6) 고광모(2009)에서는 그 외에 《伍倫全備診解》에 {있다}와 {-었-}을 제외하면 ‘ㅅㅅ’ 중철 표기가 쓰이지 않았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토

{-었-} 간에 발생한 변화 속도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고광모(2009: 117, 각주4)에 제시된 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있다}의 경우 모든 예가 ‘ㅅㅅ’ 표기로 나타나는 반면, {-었-}은 ‘-었시-’보다 ‘-어시-’의 예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시-	이스-	잇시-	잇스-	-어시-	-어스-	-었시-	-었스-
0	0	4	4	19	0	4	0

그러나 고광모(2009)에서 근거로 든 문헌은 《日東壯遊歌》 권1이라는 매우 적은 양의 자료에 국한된 것이었다. {있다}와 {-었-}이 매우 고빈도 형태소라는 것을 고려하면, 표본으로 삼은 자료의 양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또한 현전하는 《日東壯遊歌》는 후대 필사본으로¹⁸⁾, 필사 당시의 표기법이나 음운론적 변화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표본으로 삼기에 적절한 문헌이라 하기 어렵다. 특히 상기의 표에 드러난 경향이 권1에서만 확인된다는 것은(고광모 2009: 117, 각주4), 후대의 필사자가 권에 따라 필사 경향을 달리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18C 문헌들에서 ‘ㅅㅅ’ 중첩 표기는 {있다}보다 오히려 {-었-}에서 더 많이 확인된다. 아래의 [표 4]는 18C 문헌에 나타난 {있다}와 {-었-}의 개신형 전체 예를 보인 것이다.

록 하겠다.

17) [표 1],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18C 문헌에서 {있다}는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만 2,333회 등장하며, 모음 어미 결합형은 920회 등장한다. 그러나 《日東壯遊歌》 권1에서는 {있다}가 8회 확인된다.

18) 淵民本은 필사기가 있어 1876-1877년 사이에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가람본은 정확한 필사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철자법, 지질, 먹색 등으로 보아 오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성후 1991).

[표 4] 18C 문헌에 나타나는 {있다}와 {-었-}의 개신형

문헌(간행년)	있다		-었-	
	모음 변화	자음 중첩 (ㄴㄴ)	자음 중첩	
			(ㄴㄴ)	(ㄷㄴ)
伍倫全備診解(1721)		잇시되 잇서	아니흐였셔도 엿섯시니 考不中흐였시니	
御製常訓診解(1745)	이스시고			
孟子栗谷先生診解(1749)	이소디			
천의쇼감언해(1756)	이슬, 이스면 이스리오(2)			
종덕신편언해(1758)	이슨, 이슬(2) 이슬가, 이슬디라	잇서	흐였시리오	
御製續自省編診解(1759)	이슬			
三譯總解(1774)			되엿시니 왔시니	
隣語大方(1790)				괴별호연 시니
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 人等書(1792)	이스니			
諭諸道道臣綸音(1794)	이스니, 이슬지라		되엿시니	
增修無冤錄診解(1796)	이스리니라			
敬信錄診釋(佛嚴寺 版)(1796)	이슬, 이스나(3) 이스니(3), 이스되 이스랴, 이스리니(2) 이스리오(3), 이스매(7) 이스며(4), 이스면(4) 이스모로, 이스플(2) 이슨, 이슬(2) 이슬지라도, 이슴			

勸禪曲(1796)	이슬고, 이스를가			
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 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 繪音(1797)	이서			
明皇誠鑑診解(17--)			텃시니	
계	56	3	8	1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8C 문헌에서 ‘ㄸㅅ’ 표기는 {있다}의 경우 3개의 예밖에 확인되지 않지만 {-었-}의 경우 8개의 예가 확인된다. 또한 ‘ㄸㅅ’ 표기가 최초로 출현한 문헌은 {있다}와 {-었-}이 동일하며, {있다}에서 ‘ㄸㅅ’ 표기가 나타난 문헌에서는 {-었-}에서 역시 동일한 유형의 표기가 확인되었다. 앞서 모음의 변화는 {있다}가 {-었-}보다 먼저 변화해 나갔다는, 일부 문헌을 대상으로 보고한 결과가 다양한 18C 문헌을 검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의 개신형은 문헌을 확장하였을 때 선행 연구의 보고가 정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있다}와 {-었-} 간의 변화 속도 차이를 근거로 들어, ‘ㄸㅅ’ 표기가 중절 표기가 아닌 자음 변화를 반영한 것임을 보여 준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표 4]는 오히려 18C 문헌의 {있다}와 {-었-}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ㄸㅅ’ 표기가 자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지지해 준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ㄸㅅ’ 표기의 예가 18C 후반으로 갈수록 확산되지 않고 개별적이고 우연한 표기 사례로 등장한다. 즉 언어 변화를 반영한 표기로 보기 어렵다. {있다}에 발생한 모음 변화가 18C 후기 문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1796년에 간행된 《敬信錄診釋》에서는 개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둘째, ‘ㄸㅅ’ 표기가 자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면, 개신형이 표기에 반영된 (6), (7)의 예에서도 ‘ㄸㅅ’ 표기가 빈번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활용형의 2음절 모음이 변화된 개신형에서는 ‘ㄸㅅ’ 표기가 단 한 예도 확인되지 않는다. 즉 ‘ㄸㅅ’ 표기는 형태론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닌, 개별적이고 우연한 중철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⁹⁾

18C 문헌에 등장한 ‘ㅅㅅ’ 표기가 자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이 표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아마도 宋喆儀(200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중철 표기로 보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잇시-, -엇시-’ 등을 중철 표기로 보아 문제가 없는지, 중철 표기의 발생 동인과 중철 표기의 실현 양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주지하다시피 15C에는 연철 표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사름미’와 같이 실제 발음되는 각 음절을 중시하는 표기법이었다. 반면 15C부터 미약하게 나타나면서 17C부터 확산되기 시작하는 분철 표기는 ‘사름이’와 같이 단어나 형태소를 고정해서 표기하려는 문법 의식이 발현된 표기라 할 수 있다. 중철 표기는 16C부터 문헌에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사름미’와 같이 단어나 형태소를 자음 앞의 모습(또는 단독형)으로 고정하여 적는 동시에 실제 발음되는 음절도 존중하여 후행 음절의 초성에 자음을 한 번 더 적는 방식이다. 즉 중철 표기는 표음주의와 형태주의라는 두 의식이 복합된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

중철 표기에는 종성 위치에 적힐 수 있는 팔중성에 포함되어 완전히 동일한 두 자음자가 반복되는 유형이 있으며(예: 사름미), 팔중성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다른 두 자음자가 연속되는 유형이 있다(예: 님피).²⁰⁾ 전자의 경우 분철 표기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ㅅ/를 제외하면²¹⁾ 중철 표기의 형태는 분철과 연철이 겹쳐진 것과 같다(예: 사름이×사름미). 반면 후자의 경우 ‘닐을’과 같은 분철 표기가 불가능했으므로 분철과 연철이 겹쳐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때 중철 표기의 형태는 ‘ㄱ꺄, ㅂ꺄’와 같이 해당 자음 앞에 그것이 종성 자리에 놓일 때의 팔중성 표기

19) 본고에서 확인한, {있다} 활용형의 모음 변화형이 ‘ㅅㅅ’ 표기와 함께 나타나는 최초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는 鄭承惠(2012)에서 전문을 제시한 19C 초 朝鮮通事의 한글 편지 세 편 중 1806년 12월 18일 玄陽元이 小田 幾五郎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 (i) 또 館中の 作別 못하기는 分明이 難處호 事情이 잇을 듯호고

20) 李翊燮(1990)에서는 전자를 完全型 重綴, 후자를 部分型 重綴이라 하였다.

21) ‘쫘이’와 같은 표기는 [뜨디]와 같은 발음을 나타내므로 /ㅅ/를 나타내기 위한 ‘ㅅㅇ’ 분철 표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李翊燮 1990: 18).

가 겹쳐 나오는 형태를 취한다. 후자에 속하는 자음 중 /ㅈ/는 나머지 자음에 비해 중철 표기가 드물게 나타나는데²²⁾, 이는 그 외의 자음이 모두 유기음으로서, 폐쇄 지속 시작이 평음보다 길다는 특징을 지녀 중철 표기가 선호되는 음성학적 동인이 있었던 반면(홍운표 1994: 262)²³⁾ /ㅈ/만은 평음으로서 그러한 동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유형의 중철 표기이든 단어나 형태소를 자음 앞의 모습으로 고정하고 후행 음절의 초성에 실제 발음되는 자음을 다시 적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본고의 논의 대상인 ‘잇시-, -엇시-’를 중철 표기로 볼 수 있을까. 우선 18C 문헌에 나타나는 ‘ㅅㅅ’ 중철 표기의 존재를 생각하면, ‘ㅅㅅ’ 표기가 /ㅅ/에 대응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10)은 18C 문헌에서 /ㅅ/ 발음 체언과 용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와 만났을 때 ‘ㅅㅅ’으로 표기되는 예이다. (10가)는 모두 ‘잇시-, -엇시-’가 등장하는 문헌의 예로, 다섯 종의 문헌 중 세 곳에서 ‘ㅅㅅ’ 중철 표기의 예가 더 확인됨을 알 수 있다.²⁴⁾

(10) 가. 현함[도개] 𪛗툰 𪛗순 《種德 下:10a》, 쇠뭇술 어드니 《種德 下:61a》, 난간을 잡고 𪛗뭇신 𪛗려 홀 제 《三譯 1:16b》, 𪛗술 정제호고(整衣) <諸道綸 5b>

나. 𪛗짓고 𪛗선 《敬信 35b》, 집터롤 침노호야 𪛗술신 《敬信 46b》, 남의 처나 𪛗을 𪛗선 𪛗을 사므며 《敬信 82a》

다만 18C 문헌에 등장한 ‘ㅅㅅ’ 표기를 중철 표기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隣語大方》의 ‘ㄷㅅ’ 표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22) 고광모(2009: 130, 각주 27)에서는 /ㅈ/가 ‘낫존[畫, 𪛗짓지]’와 같이 ‘ㅅㅈ’ 중철 표기로 나타나는 예가 《17세기 국어사전》에 모두 아홉 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23) 때문에 유기음의 경우 형태소 내부에서도 중철 표기가 나타난다(고광모 2009: 130, 각주 26).

24) 고광모(2009)에서는 《伍倫全備諺解》에서 ‘잇시-, -엇시-’를 제외한 ‘ㅅㅅ’ 중철 표기가 나타나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 이를 중철 표기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하나의 문헌에 나타난 특징을 강력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예문 (11)의 ‘-연시-’가 [여씨]를 표기한 것이라면 ‘ㅅㅅ’ 표기 역시 경음을 표기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 (11) 부디 오늘노 오게 着實히 크별호연시니(どふぞ今日中に參様に固申達ましたにより) 《隣語 8:4a》²⁵⁾

18C 문헌에서 {-있-}의 활용형이 ‘ㄷㅅ’ 표기로 나타난 예는 (11) 하나뿐인데, 《隣語大方》의 종성 표기 양상을 살펴보면 이 예 역시 중철 표기임을 알 수 있다. (12가, 나)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隣語大方》에서는 {있다}와 {-있-}이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 ‘ㄷ’ 종성으로 표기된다. 이는 (12다-마)와 같이 ‘ㅅ’ 종성을 지닌 체언이나 관례적으로 ‘ㅅ’으로 표기되던 어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일부 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隣語大方》에는 ‘ㅅ’ 종성 표기가 단 한 예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13)에서 볼 수 있듯이 /ㅅ/ 말음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도 ‘ㄷㅅ’ 표기가 나타나, ‘ㄷㅅ’ 표기가 /ㅅ/에 대응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 (12) 가. 老親之下의 일느 사롬이 他國의 오래 일스와(老親を持て居するものが 他國に久居まして) 《隣語 2:11a》
 나. ㅎㄹㅁㅁ 스이에 氣運이 大脫^{ㅎ여} 運身을 몬^{ㅎ고} 드러 누얼습넌
 (一夜の間に 氣向がいかふ疲まして 身動を致得ませひで 引込で 臥て居まする) 《隣語 8:8b》
 다. 이곧은 존페^ㅎ 村이오라 아모겔도 어들 길이 업스외(當所はふたらひな村で 何やふな品も求め出し得ませぬ) 《隣語 1:14a》
 라. 점지 아닌 사롬이 절믄 사롬과 詰亂^{ㅎ여} 무연호을고(年よふな者の若人と云争て 何にしませふか) 《隣語 2:11b》

25) 《隣語大方》의 일본어 원문은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編(1963)의 판독을 따랐다.

마. 一代官계서 所患은 밤스이 언더흐옵시니일가(一代官の御痛は夜間如何御座らしやれまするか) 《隣語 8:4a》

(13) 가. 넬 적은 그런 걸시 밋오 혼흐기의 갑도 마장 賤히다가(昔は左様の物が最多く御座りましたにより 直段も最下直に御座りましたれども) 《隣語 3:2a》

나. 조흔 먹을 만히 마라 그른신 담아 보내옵시면(能墨を漉とすつて器に入て遣されましたらば) 《隣語 4:4b》

다. 저 늙은 얼굴은 저리 모지러 뵈되 온간 즌손 낙아 뵈니(彼は貌様はあの様に悪敷御座れども 惣しての仕形は 長然見得まするにより) 《隣語 8:16a》

‘잇시-’와 ‘-엇시-’의 ‘ㅅㅅ’을 중철 표기로 보는 관점의 마지막 어려움은, 중철 표기가 나타나는 위치의 차이이다. 18C 문헌에 등장하는 ‘ㅅㅅ’ 중철 표기의 예 (10)과 ‘ㄷㅅ’ 중철 표기의 예 (13)은 모두 /ㅅ/ 발음 체언과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한 곡용형과 활용형이다. 즉 모두 형태소 경계에서의 예이다. 반면 ‘잇시-, -엇시-’는 형태소 내부에서 ‘ㅅㅅ’ 표기가 나타난 것이므로 (10), (13)의 예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崔明玉(2002: 153)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들어 ‘-엇시-’의 예를 중철 표기가 아닌 [언시]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를 {있다}와 {-엇-}이 지닌 형태음운론적 특이성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고자 한다. 앞서 살핀 바 있듯이 중철 표기의 후행 초성은 실제 발음을 표기한 것이며, 선행 중성은 그것이 받침에 놓일 때의 표기, 즉 형태소를 고정해서 표기하려는 문법 의식에 의해 해당 형태소가 자음 앞에서 실현될 때의 표기를 고정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형태소의 경우 그러한 중철 표기는 형태소 경계에서밖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있다}의 경우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의 형태 ‘잇-’의 종성 표기 ‘ㅅ’을 고정한 채로 모음·매개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의 실제 발음형 ‘이시-’를 표기한다면, 그 형태는 ‘잇시-’로 표기

될 수 있다. 이는 {있다}가 지닌 어휘 개별적인, 형태음운론적 변칙성이 야기한 표기상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었-}과 {-겠-}은 기원적으로 {있다}를 포함하고 있어 그 형태음운론적 변칙성을 이어받게 되었다.²⁶⁾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18C 문헌의 {있다}와 {-었-} 활용형의 ‘ㄷㅅ’, ‘ㄷㅅ’ 표기는 자음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것의 변칙적인 활용에서 야기된 우연하고 개별적인 중철 표기로 보아야 함을 논의하였다. 또한 앞서 {있다}의 활용형이 겪은 2음절 중성과 2음절 초성의 변화 중, 중성의 변화는 16C에 영남 지역 문헌에서 소수 나타나기 시작하여 18C에는 중앙에서 간행된 여러 문헌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두 변화 중 더 앞서 발생한 것은 모음의 변화임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있다}의 변화는 (3)에서 (14)로 수정된다. 이러한 변화의 순서는 李熙昇(1932/1959), 宋喆儀(2002)의 견해와 동일하다.

(14) 잇고	> 잇고[일꼬]	> 잇고[일꼬]	> 잇고[일꼬]
이시니	> 이시니	> 이시니~이스니	> 있으니[이쓰니]
이서	> 이서	> 이서~이서	> 있어[이씨]
(15C 중엽)	(16C)		(오늘날)

이러한 변화의 순서는, 현대국어에서 해당 단어가 /ㅅ/ 발음을 지닌 정칙 활용 {있다}로 실현되는 방언이 다수 존재함을 통해 방증된다. 즉 모음의 변화는 일어났으나 자음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방언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다. (15가)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활용형에 가장 가까운 제주 방언의 예이며, (15나)는 모음의 변화만 일어난 육진 방언의 예, (15다)는 자음과 모음이 모두 변화한 중앙어의 형태이다.²⁷⁾ 반면 필

26) 다만 고광모(2009: 130-131)에서 지적한 바대로, 분철과 연철이 겹친 형태가 아니며 자음 앞의 표기형과 모음 앞의 표기형이 겹친 형태의 중철 표기 중 음성학적 동인이 없는 유형은 우발적인 것으로, 출현 빈도가 낮다. 이러한 설명은 ‘잇시-’형과 ‘-엇시-’형이 18C 문헌에 나타나는 양상과 잘 부합한다.

27) (15가, 나)의 예는 최전승(2016: 173-174)을 참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함경도와 평안도의 전형적인 지역 방언에서도 육진 방언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고광모(2009: 122, 각주 14)에서도 경남북, 황해도, 평남북, 육진 지역에서 {있다}, {-었-},

자의 관견 타인지, 자음의 변화만 겪은 방언에 대한 보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만약 자음의 변화가 먼저 발생하였거나, 두 변화의 선후 관계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모음의 변화만 겪은 방언이 있는 것처럼 자음의 변화만 겪은 방언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 가. 제주 방언: 이시라, 이서

나. 육진 방언: 이스니, 이서

다. 중앙어: 이쓰니, 이씨

그렇다면 18C 이후 {있다}가 겪은 두 가지 형태 변화의 순서 차이는 우연한 것일까, 필연적인 것일까?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주목하지 않거나(宋喆儀 2002, 최전승 2002) 우연적인 것으로(고광모 2009) 이해하였다. 본고에서는 {있다}가 겪은 모음의 변화와 자음의 변화가 서로 무관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즉 먼저 발생한 모음의 변화가 자음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있다} 활용형이 겪은 자음의 변화 동인과 변화 시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도록 하겠다.

3. 자음 변화의 동인

2장에서는 18C 문헌에 나타나는 {있다}와 {-엿-}의 ‘ㄴㄴ’ 표기형이 자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닌, 중철 표기임을 보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용되는 ‘이쓰니’, ‘이씨’와 같은 된소리를 지닌 형태는 언제부터 등장하는 것일까.

宋喆儀(2002: 227-228)에서는 (16)과 같은 표기는 중철 표기로 볼 수

{-젯-}의 형태소 끝 자음이 /ㄴ/로 실현된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경상도의 경우 자음 /ㄴ/과 /ㄴ/가 분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없으며 {있다}의 어간 말음이 /ㅅ/가 아니라면 나타날 수 없는 표기이므로, 이러한 예가 나타나는 19C 말에 ‘잇-’이 ‘있-’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도 (16)의 예에 대한 해석에 동의하며, 늦어도 (16)과 같은 표기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있다}의 자음 변화(/ㅅ/ > /ㅆ/)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 (16) 가. 다만 원슈 갑푸미 세 가지 잇쓰니 초싱에 갑는 즈도 잇쓰며 지흥
의 갑는 즈도 잇쓰며 후싱의 갑는 즈도 잇는지라 《조군 12b》
나. 일야는 한 여지 잇씨 시모 즈리의 안즈 진뭇혀여 보기를 이윽
히 헛다가 《조군 22a》
다. 다른 군슈들도 다 교동 군슈 호하쓰면 나라 일 헛여 가기가 무
슴 걱정이 잇쓰라고 헛더라 <독립 1897.02.16.>

다만 {있다}의 자음 변화가 발생한 시기가 19C 말인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있다}와 {-었-}, {-겠-}의 활용형이 ‘ㅅㅅ’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20C까지 이어져서 신소설에서도 대부분 그러한 표기로 나타나므로(고광모 2009: 129), (16)의 예가 나타나기 이전의 ‘ㅅㅅ’형 표기를 모두 중철 표기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18C 문헌에서는 {있다}의 활용형이 ‘ㅅㅅ’형으로 나타나는 예가 단 3개에 불과했지만, 19C 중엽의 문헌에서는 그 예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은 19C에 간행된 문헌에 나타나는 {있다}의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의 형태를 정리한 것으로, 해당 형태가 5회 이상 출현한 문헌만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²⁸⁾

28) 국어사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19C 전반기의 문헌이 극히 드문 반면 1880년대부터는 급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880년대 중반까지의 문헌에 국한하여 {있다}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881년에 간행된 《조군령적지언해》에서 ‘잇쓰니’의 예가 확인되므로, {있다}가 경음을 지녔음이 표기상으로 확인되는 시기와 그 이전 시기를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1880년대 문헌의 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5] {있다}의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 19C

문헌(간행년)	‘이시니’형	‘잇시니’형	‘이스니’형	‘잇스니’형	계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論音(1839)	4	0	7	3	14
太上感應篇圖說諺解(1852)	24	9	3	50	86
유년첨례광익(1865)	0	0	0	43	43
南宮桂籍諺解(1876)	0	0	0	5	5
過化存神諺解(1880)	0	0	1	9	10
三聖訓經諺解(1880)	0	0	0	16	16
조군령격지언해(1881)	2	1	0	33 ²⁹⁾	36
성교절요(1882)	0	1	0	49	50
關聖帝君應驗明聖經諺解(務本堂版)(1883)	0	0	0	12	12
이언언해(1883)	165	4	1	28	198
進教節要(1883)	0	0	0	23	23
턴유성교빅문답(1884)	0	0	0	19	19
계	195	15	12	290	512

[표 5]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있다}의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에서 ‘ㅅㅅ’ 표기를 지닌 형태(‘잇스니, 잇시니’형)가 그렇지 않은 형태(‘이스니, 이시니’형)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論音>에서는 ‘ㅅㅅ’형의 비율이 약 21.43%에 이르며, 《太上感應篇圖說諺解》에서는 약 68.6%에 이른다. 《유년첨례광익》에서는 모든 예가 ‘ㅅㅅ’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율은 ‘ㅅㅅ’형이 18C 문헌에서 단 3개의 예만 확인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29) ‘잇쓰니’형의 예 7개를 포함한 수치이다.

둘째, ‘ㅅㅅ’형은 ‘잇스니’와 같이 모음 변화를 반영한 개신형에서 주로 확인되며, 모음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고행에서는 ‘잇시니’보다 ‘이시니’형이 더 많이 출현한다. 이는 18C에 모음 변화가 반영된 개신형에서 ‘ㅅㅅ’형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개신형에서 ‘ㅅㅅ’형이 많이 확인된다는 사실은, 이 표기가 자음의 변화를 반영한 것임을 보여 준다. 상기의 두 가지 특성은 [표 5]에 제시한 대부분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³⁰⁾

마지막으로, 단 한 예에 불과하지만 (17가)와 같이 {-었-}이 /ㅅ/를 지닌 형태로 나타나는 예가 1844년 추사 언간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었-}의 변화가 {있다}보다 앞서 일어날 만한 동인이 없는 한, 동 시기에 {있다} 역시 자음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30) 동일 문헌에서 {있다}의 모음 어미 결합형이 실현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ㅅㅅ’형이 지배적임은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과 동일하다. 그러나 ‘잇서’형의 빈도가 높은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잇시--+어’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서/와 /ㅅ/의 중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이 {있다}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문헌(간행년)	‘이서’형	‘잇서’형	‘이서’형	‘잇서’형	계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論音(1839)	1	3	1	0	5
太上感應篇圖說諺解(1852)	15	98	0	0	113
유년첨례광익(1865)	0	0	0	28	28
南宮桂籍諺解(1876)	0	10	0	0	10
過化存神諺解(1880)	0	4	0	0	4
三聖訓經諺解(1880)	0	11	0	0	11
조군령적지언해(1881)	1	9	0	0	10
성교절요(1882)	0	0	0	22	22
關聖帝君應驗明聖經諺解(務本堂版)(1883)	0	6	0	0	6
이언언해(1883)	0	63	0	0	63
進教節要(1883)	0	0	0	6	6
턴주성교백문답(1884)	0	0	0	7	7
계	17	204	1	63	285

(17) 가. 우리개 대상 담제 지나씨나 네의 내외는 또 변네을 당호야 여
네히 지내지도 못호고 정경이 보는 듯호다 <1844.03.06. 秋史 34>
[秋史⇒며느리 豊川任氏]

나. 만일 충효와 절의 등스를 극진이 못호면 몸이 비록 세상에 잇스나
그 므음은 임의 죽어쓰니 가히 이르되 살기를 도적호다 홀지니라
(若不盡忠孝節義等事 身雖在世 其心既死 可謂偷生) 《三聖 03b》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있다}의 자음 변화는 19C 전반기에, 늦어도 19C 중엽에는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19C 전기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19C 전기에 발생한 형태 변화 양상을 꼼꼼히 살필 수 없어, ‘ㅅㅅ’형 표기가 자음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남는다.

그렇다면 중세와 근대국어 시기에 /ㅄ/ 발음을 지닌 용언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의 어간 발음은 왜 /ㅄ/로 변화한 것일까. 이는 모음·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이 ‘이스니>이쓰니’, ‘이서>이씨’와 같은 변화를 겪어 나타난 것인데, 두 모음 사이의 /ㅅ/가 /ㅄ/가 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왔다.

첫 번째는 {있다}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반의어 {없다}의 발음, [업쓰니], [업씨]가 {있다}에 영향을 준 결과라고 보는 견해이다. 宋喆儀(2002), 고광모(2009)에서는 두 단어가 긴밀한 연상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함께 병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³¹⁾ 두 번째는 변칙적으로 교체하는 {있다}의 두 어간형 중 ‘잇-’이 ‘이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보는 견해이다. 장애음 뒤 경음화가 18C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崔明玉(2002)에서는 ‘잇-[인]’

31) 宋喆儀(2002)에서는 그에 더하여 중절표기가 발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이 ‘이시-’에 영향을 주어 ‘잇시-[인시]’가 되어 서로 더 유사해짐으로써 두 이형태가 단일화되는 중간 단계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최진승(2002, 2016)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이시->잇시-’의 변화는 또 다른 이형태 ‘잇-’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유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宋喆儀(2002), 고광모(2009)에서 주장한 첫 번째 견해, 즉 {있다}의 활용형에서 나타난 /ㅅ/ > /ㅍ/ 변화는 두 이형태가 서로 유사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반의어 {없다}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광모(2009)에서 논의한 것처럼 {있다}의 패러다임 평준화는 ‘이시->이스-’와 같은 모음의 변화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모음의 변화가 발생하면 {있다}의 활용형은 ‘잇고[인꼬], 이스니, 이서’가 되어, 결과적으로 /ㅅ/ 발음 용언의 일반적인 활용 양상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2장에서 살폈듯이 실제로 그러한 형태가 영남 지역 문헌에서는 16C부터 소수 나타나며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에서는 18C부터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모음 변화에 뒤이어 나타나는 자음 변화는 패러다임 평준화와는 무관하다. 혹 자음 변화가 먼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崔明玉(2002)의 전제와 달리 장애음 뒤 경음화 현상이 18C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18), 자음의 변화는 {있다}의 이형태가 ‘잇[인]-~이시-’에서 ‘잇[인]-~잇시[이씨]-’로 바뀌는 것이며 서로 더 유사해진다고 하기 어렵다. 두 이형태가 더 유사해졌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씨]가 ‘잇시-’로 표기되는, 표기상의 문제일 뿐이다.

- (18) 가. 신이 쇠히며 뼈 힘이 업썌 위약히며 여위고(腎衰骨痿瘦厄羸) 《馬經 上:36a》, 업쁘모로 《家禮 1:12b》, 업쁘니 《家禮 1:12b》, 목숨이 업쓸까 호노라(沒了命) 《伍倫 5:7a》 [宋喆儀(2002: 229) 참고]
나. 솟기도 어렵습찌니와(申もしにくいなれども) 《捷解 8:5a》, 싸히 업써더(仆地) 《馬經 上:72a》, 이시며 업찌예(存亡) 《馬經 下: 118b》, 살며 죽찌(生死) 《馬經 下:118b》 [고광모(2009: 129, 각주 25) 참고]

둘째, /ㄴ/ > /ㄹ/의 변화를 {있다}의 두 이형태가 서로 닮아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왜 19C(‘ㄴㄴ’ 중철 표기를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18C)에 발생하였는지 설명해 주지 못한다.³²⁾ 반면 반의어 {없다}의 영향으로 /ㄴ/ > /ㄹ/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는, 해당 변화가 왜 19C에 발생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다.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중앙어에서는 18C에 {있다}의 모음 변화가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가 자음 변화를 가능케 했다고 보는 것이다.

(19가)는 {있다}가 모음 변화를 겪은 후 상보 반의어 {없다}에 감염(contamination)³³⁾되어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인 것이며, (19나)는 모음 변화를 겪지 않은 상태에서 {없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19가)의 경우 {있다}와 {없다}의 활용형이 더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 형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있다}에 발생한 모음의 변화가 {없다}에 의한 감염을 도운 것이라 할 수 있다.

(19) 가.	업꼬	업쓰니	업써	나.	업꼬	업쓰니	업써
		×	×			×	×
	일꼬	이스니	이서		일꼬	이시니	이서
	↓	↓	↓		↓	↓	↓
	일꼬	이쓰니	이써		일꼬	이쓰니	이써
						이씨니	이씨

유사한 예를 ‘숯다>사되다’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숯다}는 본래 어간 말에 /ㄹ/을 지닌 용언으로, /ㄹ/가 소실된 이후의 문헌에서는 ㅂ 변칙 활용을 하여 ‘숯고, 숯오샤디, 숯오디, 숯와’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었다. 그러다 19C에는 (20)과 같이 /ㄴ/ 발음을 지닌 정칙 활용 용언, ‘사로다(사로고, 사로니, 사와)’로 변화하게 된다. ㅂ 변칙 활용 용언

32) 물론 유추적 변화가 발생한 시기에 대한 설명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니다.

33) ‘감염’은 어떠한 언어 요소가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관련된 다른 언어 요소와 음운론적으로 유사해지는 변화이다(Hock 1991: 189-199).

의 패러다임이 모음·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을 기준으로 평준화되는 것은 ‘열좁다>여쭈다’, ‘잡습다>잡수다’, ‘굶다[並]>가루다’ 등에서도 확인되는 변화이다.

- (20) 가. 크게 탄식하고 하늘을 부르나 하늘이 놓흐스 살오기 어려온지
라(太息呼天 天高難訴) 《應真經 4b》
나. 아모는 머리를 두다려 두 번 절하야 솔오느니 《언간독 12b》
다. 살우다 白 《國漢 166》
라. 살오다 s. 白 (알월-*빅) 살와; 온 《한영 523》

[정경재(2015: 327)에서 재인용]

그러나 ‘습다>사로다’의 변화와 달리, ‘사로다>사되다’의 변화는 다른 단어에서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렵다. 정경재(2015: 328)에서는 ‘사로다>사되다’의 변화를, {습다}의 의미 영역을 ‘아되다’가 대신하게 되면서 생긴 유의어 간 혼효 혹은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현대국어 용언 중 어간 말음절이 /되/인 단어는 ‘사되다’와 ‘아되다’ 두 단어뿐이라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고 보았다. 즉 ㅂ 변칙 활용 용언이었던 ‘습다’가 ‘아되다’의 영향에 의해 ‘사되다’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로다’로 변화하여 ‘아되다’와 형태가 유사해지는 단계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두 어휘소가 혼효나 감염을 통해 서로 닮아 가는 변화를 겪기 위해서는, 이들이 유의어나 반의어같이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조건으로 알려져 왔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더하여 유의어나 반의어에 의한 감염은 두 단어의 형태가 유사할 때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2006: 115-116)에서는 현대국어에서 {꽃다}가 ‘뽑고, 꼬브니, 꼬바’와 같이 실현되는 것은, 반의어 {뿔다}에 감염된 결과라고 보았다. {뽑다}와 {뿔다}의 어간은 CVC 구조에 초성이 경음이며 중성이 /ㄴ/로 동일하다. 이러한 형태상의 유사성이 여러 많은 반의어 중 이 두 단어 간의 감염이 일어날 수 있게

한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있다}와 같은 고빈도 단어는 독자적인 표상이 강하므로 유추적인 변화에 저항하는 힘이 크다. 따라서 모음의 변화에 의해 두 단어의 활용형이 ‘이스니-업쓰니’, ‘이서-업씨’와 같이 더 유사해짐으로써 비로소 {있다}가 {없다}의 형태에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있다}와 {없다}의 긴밀성은, {없다}의 형태통사론적인 활용 양상이 {있다}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宋喆儀 2002).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있다}의 활용형에 발생한 두 가지 변화 중, 모음의 변화가 먼저 발생하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자음의 변화가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C에는 모음이 변화하지 않은 ‘잇시니’형이 확인되는데, 이 어형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이것이 [이씨니]를 표기한 것이라면, 모음의 변화 없이 자음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고에서 상정한 변화 순서와 어긋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없다}의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1) 가. 平日 親히던 보람이 업시니 世上의 이런 薄情흔 사람이 어대
잇.....실이하고 分明이 未安이 생각.....호리이다 <1806.12.18. 朝鮮
通事>³⁴⁾

나. 나도 아직은 별노 탈 업시니 깃부옵 <1829 秋史 15>

다. 화 곳 나시면 프실 디 업시니 너관과 너인의게나 프시고 ≪한
중록 1:57b≫

19C에는 /ㅅ/, /ㅈ/, /ㅊ/ 뒤에서 /ㅡ/가 /ㅣ/가 되는 전설모음화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없다}의 활용형 ‘업쓰니, 업쓰며’ 등도 이에 따라 ‘업시니, 업시며’로 실현될 수 있었다. {있다}의 모음 변화

34) 이는 鄭丞惠(2012)에서 전문을 제시한 朝鮮通事의 한글 편지로, [각주 19]에 소개한 것과 동일한 자료이다.

가 18C에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9C에도 ‘이시니’형이 유지될 수 있었고 이러한 어형은 ‘업시니[업씨니]’에 의한 감염으로 ‘이시니>잇시니[이씨니]’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니>잇스니[이쓰니]’의 변화가 확산됨에 따라 모음 변화에 보수적인 어형도 자음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다.

4. 모음 변화의 동인

3장에서는 {있다}의 활용형에 발생한 모음 변화가 {없다}의 활용형에 의한 감염을 야기하여 자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있다} 활용형의 모음은 왜 변화한 것일까. {있다}의 형태 변화의 시작이었던 모음 변화의 동인을 명쾌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아직 선명하게 해결되지 않은 음운사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모음 변화의 동인에 대해 하나의 답을 제시하기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제기된 다양한 주장들을 하나씩 살피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어 왔다.

첫 번째는 /ㅅ/, /ㅈ/, /ㅊ/ 뒤에서 발생한 /ㅡ/ > /ㅣ/의 전설모음화 현상에 의한 재분석 혹은 과도교정의 결과로 ‘이시니>이스니’가 나타났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허웅(1982ㄱ: 29, 1982ㄴ: 41), 李賢熙(1993: 66, 각주6), 최동주(1995: 137-138) 등 초기의 연구에서 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崔明玉(2002: 157)에서는 {-었-}의 모음 변화형이 확인되는 문헌에서 /ㅅ/나 /ㅈ/ 뒤의 /ㅡ/ > /ㅣ/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이를 비판하였으며, 宋喆儀(2002: 225), 최전승(2002: 56-57)에서도 ‘이시->이스-’의 변화가 18C 후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나 동시기 자료에는 전설모음화 현상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어 비판하였다.³⁵⁾

그러나 근래에 최전승(2016)에서는 앞선 견해를 뒤집고, 18C 후기 또

는 그 이전 단계에서 /ㅡ/의 전설모음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음운 현상이 {있다}의 모음 변화를 야기한 동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다시 제기하였다. 최전승(2016: 159-161)에서 제시한 18C 전설모음화의 예 일부를 (22)에 옮긴다.³⁶⁾

(22) 가. 粘泥 진흙 《漢清 1:34a》

나. 粘泥 진흙 《方言 申部:9b》

다. 싱리스별 괴약 업서 안침의 우흙터니 저력의 설운 곡성 <修善 1a>

본고에서는 최전승(2016)에서 주장한 대로, 치찰음에 후행하는 /ㅡ/의 전설모음화 현상이 구어에서 18C에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과 음운 변화의 발생 초기에 과도교정이 문헌에 드러날 가능성을 열어 두고자 한다. 그러나 18C에 확인되는 예들이 모두 /ㅈ/, /ㅊ/ 뒤에서의 전설모음화이며, /ㅅ/ 뒤에서의 예가 없다는 점에서 ‘이시니>이스니’를 이 음운 현상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을지 주저하게 된다. 또한 전설모음화의 초기에 발생한 과도교정이 고빈도 기초 어휘인 {있다}에 유난히 집중적으로 드러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고빈도어는 독자적인 표상이 강하여 유추적 변화에 저항하고 변칙성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ㅡ/의 전설모음화가 ‘이시니>이스니’ 변화를 이끈 주된 동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5) 최전승(2002: 56-57)에서는 그 외에 전설모음화가 발달하였으나 ‘이시-/잇-’의 교체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 방언과 전설모음화 현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이시->이스-’ 변화가 발생한 평안도 방언의 사례를 제시하여, /ㅡ/ > /ㅣ/ 전설모음화와 ‘이시->이스-’ 변화와의 관계에 의문을 표하였다.

36) 최전승(2016: 161)에서는 그 외에 ‘그르츠며>글웃치며’, ‘즈츱-[泄瀉]>지치-[疲困]’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정경재(2015: 73-74)에서 보고한 것처럼, 15C에 어간 말에 /ㅈ/를 지녔던 용언 대부분이 오늘날 ‘X치-’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 ‘긋다>그치다’는 15C에, ‘밋다>미치다’는 16C에 이미 변화가 확인되므로 이 변화에 /ㅡ/의 전설모음화가 관여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 의미 변화 없이 형태 변화가 발생한 예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견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宋喆儀(2002: 223-224)의 견해로, /ㅅ/, /ㅈ/ 등의 자음 뒤에서 단모음과 상향 이중모음이 중화되는 현상에 의해 ‘이셔’가 ‘이서’와 변별되지 않게 되면서 ‘이시--+어→이셔’를 ‘잇--+어→이서’로 재분석한 결과,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에서도 ‘잇--+으니→이스니’가 등장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의 타당성 역시 해당 음운 현상이 발생하고 확산되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宋喆儀(2002: 223-224)에서는 늦어도 18C 중엽쯤에는 /셔/와 /서/의 중화가 완료되어 ‘셔’로 표기되는 것이 있어도 실제 발음은 [서]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셔/와 /서/의 중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으며, 그것이 문헌에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9C에 들어서의 일이다. 또한 후기 중세국어 시기 문헌에 나타나는 ‘셔~서’ 혼기 예로 알려져 있던 것들은 원문 이미지를 확인한 결과 잘못 판독된 것이거나 탈획의 가능성이 있는 등 결정적 근거로 삼기 어려운 예들이 김한별(2014)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셔/와 /서/의 중화를 뒷받침하는 예들이 18C 이전 문헌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3)은 김한별(2014: 338-339, 348)에서, (24)는 宋喆儀(2002: 223)에서 가져온 것이다.³⁷⁾

- (23) 가. 설운가<140[채무이]>~설위<105[채무이]><167[채무이]> <順天金氏墓 出土 諺簡>
 나. 설운<9-11[송규림]>~서뤄<2-1[송규림]> <恩津宋氏 宋奎濂家 <先札> 所在 諺簡>
 다. 빅만식(百萬歲)<066[金柱國]> <金誠一家 언간>

37) (23나, 다)에 제시된 <恩津宋氏 宋奎濂家 <先札> 所在 諺簡>과 <金誠一家 언간>은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지 않은 자료로, 김한별(2014)에서 제시된 예를 그대로 가져왔으나 예문 제시 방식은 조금 수정하였다. /ㅈ/의 조음위치 변화에 따른 ‘저~저’ 혼기의 예는 18C 이전의 예가 더 많이 보고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셔~서’ 혼기의 예만 제시하였다.

(24) 가. 服事 섬기다 《譯語 上:31a》

나. 事 섬길 스 《千頌 9b》

2장의 (7)에서 제시한, 18C ‘이서(有) <養老論 3a>’, ‘이소디(有) 《孟 栗 1:11a》’의 예 역시 이 음운 현상에 의한 ‘서~서’ 혼기 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宋喆儀(2002)의 견해 역시 {있다}의 모음 변화를 야기한 동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자 한다.

다만 최전승(2016: 172)에서는 {있다}의 모음 어미 결합형 ‘이서’가 ‘이서’로 표기된 예가 극히 드물며, ‘이서[이서]’가 다른 활용형들로 유추적 확대를 거듭할 만한 출현 빈도를 지니지 않았다는 점을 이 견해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본고의 [표 1], [표 2]에 제시된, 18C 문헌에 출현하는 {있다} 활용형의 빈도를 살펴보면, 모음 어미 결합형의 빈도가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서’가 [이서]로 발음되면서 ‘잇--+어’로 분석된다면, 이때의 ‘잇-’은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의 어간형과 동일한 형태가 된다. 따라서 재분석된 ‘잇-’이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으로 확산되는 힘은, {있다}의 모음 어미 결합형과 자음 어미 결합형의 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그 둘을 합한 출현 빈도는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의 빈도보다 높다.

상기의 두 음운 현상과 {있다} 활용형의 모음 변화를 관련짓기 위해서는, ‘이스니’형이 영남 지역 자료에서는 16C에 이미 나타난다는 사실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두 음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가 영남 지역 자료에서는 소수이나마 16C부터 나타난다. (25)는 /-/ 전설모음화의 과도교정형으로 볼 수 있는 예로³⁸⁾, 《正俗諺解》는 경상도 관찰사 金安國이 언해하여 경상도에서 간행된

38) 최전승(2016: 158, 각주 70), 김한별(2016: 187)에서는 ‘-암/엄직>-암/엄직’의 예들도 치찰음 뒤 /-/의 전설모음화 현상과 관련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이 한 형태소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음운론적 동인에 의한 변화인지 형태소 개별적인 변화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25)의 예를 포함하여, 이 예 역시 /-/ 뒤에서의 예는 아니다.

책이다. (26)은 [셔]와 [서]의 중화를 보여주는 ‘셔~서’ 혼기의 예로, 발신자가 경상도 선산에서 태어난 信川 姜氏이므로 역시 영남 지역어가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5) 네 님구미 지블 느즈기 호고 오솔 사오나이 호리도 겨시며 그물
앗쳐 디 아니 니스리도 겨시며 프른 뵈 거스로 출던 발 선 도리리
도 겨시며(古之人君伊 有卑宮室而惡衣服者爲跡 有惜百金而不作露臺
者爲跡 有以青布奴 綠寢殿葦廉者爲跡) 《正俗 25a》

[김한별(2016: 187)에서 재인용]

- (26) 가. 설워[哀]<42[신천강씨]>~설워<9[신천강씨]> <順天金氏墓 出土 諺簡>

나. 썩선호니[紛]<126[신천강씨]>~수선호니<131[신천강씨]>, 수선
히여<153[신천강씨]> <順天金氏墓 出土 諺簡>

[김한별(2014: 338)에서 재인용]

즉 치찰음 뒤 /-/의 전설모음화 현상과 역시 치찰음 뒤 단모음과 상향이중모음의 중화 현상은 모두 {있다} 활용형의 모음 변화를 야기한 동인이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나 두 현상 모두 19C 자료에서부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영향 관계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두 음운 현상이 언제 시작되었고 18C에 어느 정도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해당 현상과 {있다}의 형태 변화 간의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선 두 견해가 음운론적인 데에서 변화의 동인을 찾은 것과는 달리, 마지막 견해는 {있다}가 변칙 활용이었다는 형태음운론적인 점에 주목하였다. 崔明玉(2002)에서는 변칙 활용을 하는 {있다}와 {-었-}이 어휘화된 두 개의 이형태를 지나다가 그것이 단일화되는 변화를 겪은 것이라고 보았으며, 고광모(2009)에서는 변칙 활용을 하는 {있다}가 /ㄹ/ 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정칙 활용 용언의 모델에 이끌린 유추적 변화로 이해하였다.

앞서 2장에서 {있다}와 {-었-}, {-겠-}의 활용형에서 발생한 동일한 모음 변화가 {있다}에서 먼저 시작됨을 확인하였다. 고광모(2009)에서는 모음 변화가 다른 정칙 활용 용언의 모델에 이끌린 것이기에 {있다}에서 먼저 발생한 것이며, 宋喆儀(2002)에서 주장한 음운론적인 동인은 {있다}와 {-었-}에 달리 적용될 수 없으므로 형태소 간 변화 속도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형태의 단일화 과정, 혹은 패러다임 평준화 과정은 음운론적 동인과 상충되지 않는다. /ㅡ/의 전설모음화 현상에 의해 ‘이시니>이스니’의 변화가 일어났든, /셔/와 /서/의 중화 현상에 의해 ‘이셔>이서’의 변화가 일어났든, 변화한 활용형은 ‘잇+어미’ 구성으로 재분석되어 자음 어미 앞에서의 이형태인 ‘잇-’과 함께 ‘이시-’가 유지되는 나머지 환경으로 확산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이형태의 단일화 혹은 패러다임 평준화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음운론적 동인이, 다른 정칙 활용 용언의 모델에 이끌리는 유추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잇-~이시-’의 교체는 15C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던 변칙 활용이었다. {있다}가 고빈도 기초 어휘임을 고려하면 활용의 변칙성이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고빈도어는 유추적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어 불규칙형이 더 잘 유지되기 때문이다.³⁹⁾ 국어사에서도 체언의 변칙 활용이 모두 사라진 것과는 달리 용언의 변칙 활용은 긴 시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⁴⁰⁾ {하다}가 그러하며, 통시적으로 점점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ㄷ 변칙 활용에서도 가장 고빈도어인 ‘걷다, 듣다, 묻다’는 변함없이 변칙 활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정경제 2015: 3.3절).

39) Bybee(1985)에서는 빈도가 형태소소적 변화에 견디는 능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충분한 빈도를 지니는 형태들은 독립적으로 학습되고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

40) 이러한 차이는 체언이 자립어로서 조사 없이 단독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 반해, 용언은 언제나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기 중세국어 시기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변칙 활용 용언의 패러다임이 평준화된 사례를 모아 귀납적으로 평준화의 방향을 정리한 정경재(2015: 5.3절)에서는, 자음 어미 결합형에서의 교체형과 모음·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에서의 교체형이 구분되는 변칙 활용은 모음·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평준화되며 그 반대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崔明玉(1993), 郭忠求(1994), 김현(2001), 임석규(2004) 등에서도 국어 용언은 모음(·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재조직되는 경향이 있음이 언급되었다. 따라서 {있다}의 경우에만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의 형태 ‘잇-’이 단독으로 {있다}의 패러다임을 재조직하는 중심 형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덧붙여 최전승(2016: 165-166, 각주 86)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견해는 {있다}의 평준화가 왜 18C에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주지 못한다. 정칙 활용 용언의 패러다임이라는 유추의 틀은 15C부터 존재 하던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18C 무렵에 발생한 음운 현상에 의해 모음 어미 결합형이나 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의 형태가 변화하고 그때의 어간이 ‘잇-’으로 재분석되었다면, 그것이 자음 어미 앞에서의 형태 ‘잇-’과 함께 {있다}의 패러다임을 평준화하는 중심 형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있다} 활용형의 모음이 변화한 동인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입장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각 입장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첫 번째, 두 번째 변화 동인은 세 번째 변화 동인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함께 {있다}의 형태 변화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오히려 {있다}라는 고빈도 용언이 변칙 활용을 유지하지 않고 패러다임 평준화를 경험하게 된 이유와, 그 변화가 중앙어에서 18C에 발생한 시기적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ㅅ/의 조음 위치 변화와 /ㅅ/ 뒤에서 발생한 모음의 변화에 대해 더 정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15C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있다}가 겪은 활용 패러다임의 형태음운론적 변화를 꼼꼼하게 살펴, 변화의 과정과 시기를 확인하고 변화 동인을 고찰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단 하나의 용언 {있다}의 변화를 살핀 것이지만, {있다}는 범주적 특이성, 범언어적 보편성, 사용 빈도의 측면에서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또한 {있다}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기원적으로 {있다}가 포함된 구성에서 문법화한 {-었-}과 {-겠-}의 변화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15C {있다}는 {ㅎ다}, {ㄷ뵈다}, {이다}와 함께 단 하나의 형태소만 포함된 변칙 활용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⁴¹⁾, {있다}가 정칙 활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변칙 활용이 소멸하는 과정을 살핀다는 의미도 지닌다.

{있다}는 모음·매개모음 어미 결합형이 ‘이서>이씨’, ‘이시니>이쓰니’와 같은 변화를 겪어 패러다임이 평준화된다. 이때 활용형이 겪은 변화는 자음의 변화와 모음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앙어에서 {있다}의 개신형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18C를 대상으로, 문헌에 나타나는 {있다}의 예를 전수 조사하여 변화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있다}가 겪은 두 가지 변화 중 모음의 변화가 먼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음의 변화는 {있다}와 {없다}의 활용형을 ‘이쓰니-업쓰니’, ‘이서-업씨’와 같이 유사하게 만들어, {있다}의 활용형이 {없다}에 ‘감염’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있다}의 자음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있다}가 겪은 모음의 변화는 그 동인을 명확하게 한정하기 어려웠다. 이는 /ㅅ/의 조음 위치 변화와 /ㅅ/ 뒤에서 발생한 모음의 변화라는, 아직까지 선명하게 해결되지 않은 음운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모음의 변화 동인에 대해서는 선행

41) 이들이 모두 고빈도 형태소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연구의 제안을 정리하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서는 음운사의 연구가 정밀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있다}와 {-었-}, {-겠-}은 동일한 형태음운론적 변화를 겪었는데, 그 변화 속도는 같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것처럼, {있다}에서 시작된 변화가 {-었-}과 {-겠-}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형태소 간 변화 속도 차이뿐 아니라, {있다}의 하위 품사(동사, 형용사, 보조용언)에 따라, {있다}가 실현된 구문에 따라, 변화가 진행되는 양상에 차이가 없는지 더 정밀하게 살피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광모(2009), ‘이시-/잇->있-, -어시-/-엇->-엇-, -게시-/-/갯->-갯-’의 변화, 《언어학》 53, 한국언어학회, 115-140.
- 郭忠求(1994), 系合 內에서의 單一化에 의한 語幹 再構造化, 《國語學研究(南川朴甲洙先生 華甲紀念論文集)》, 태학사, 549-586.
- 김한별(2014), 국어의 음운 변화 ‘syV>...>sV’에 대한 재고찰, 《國語學》 72, 국어학회, 323-365.
- 김한별(2016), “근대국어 후기 ‘으’의 전설(구개)모음화 현상과 그 과도고정의 역동성에 대한 일고찰”에 대한 토론편, 《2016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87-188.
- 김현(2001),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 어간 재구조화: 후음 말음 어간으로의 변화에 한하여, 《國語學》 37, 국어학회, 85-113.
- 김현(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國語學叢書 54, 태학사.
- 문숙영(2004), 제주 방언의 현재시제 형태소에 대하여, 《형태론》 6-2, 형태론 편집위원회, 293-316.
- 박진호(2017), 한·중·일 세 언어의 존재구문에 대한 대조 분석: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언어와 정보 사회》 30,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11-340.
- 白斗鉉(1992),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研究》, 國語學叢書 19, 태학사.
- 백두현(1997), 19세기 국어의 音韻史的 고찰: 母音論, 《韓國文化》 2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47.
- 백두현(2003),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 宋喆儀(2002), 用言 ‘있다’의 通時的 發達에 대하여, 《朝鮮語研究》 1, 朝鮮語研究會, 207-237.
- 安秉禧·李珪鎬(1990), 《中世國語文法論》, 學研社.
- 李基文(1978), 《十六世紀 國語의 研究》, 塔出版社.
- 李翊燮(1990), 近代 國語文獻의 表記 體系: 重綴 表記를 중심으로, 《韓國文化》 1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23.
- 이성후(1991), 日東壯遊歌의 異本 研究, 《論文集》 12, 金烏工科大學校, 329-339.
- 이안구(2001), ‘있다’와 ‘없다’의 활용양상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41-361.
- 李賢熙(1993), 국어 문법사 기술의 몇 문제, 《한국어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7-77.

- 이현희(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韓國文化》 1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57-81.
- 李熙昇(1932), “ㄷ”받침의 可否를 論함, 《朝鮮語文學會報》 5. [재수록: 李熙昇(1959), 《國語學論叢》, 乙酉文化社, 17-29].
- 임석규(2004),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와 활용 패러다임, 《형태론》 6-1, 형태론편집위원회, 1-23.
- 정경재(2015),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鄭承惠(2012), 朝鮮通事가 남긴 對馬島의 한글편지에 대하여, 《어문논집》 65, 민족어문학회, 119-250.
- 조항범(1998), 《註解 순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崔明玉(1993), 語幹의 再構造化와 交替形의 單一化 方向, 《省谷論叢》 24, 성곡학술문화재단, 1599-1642.
- 崔明玉(2002), 過去時制 語尾의 形成과 變化, 《震檀學報》 94, 진단학회, 135-165.
- 최전승(2002),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특질 몇 가지에 대한 대조적 고찰: 중간본 《여사서 언해》를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41, 한민족어문학회, 27-81.
- 최전승(2016), 근대국어 후기 ‘으’의 전설(구개)모음화 현상과 그 과도교정의 역동성에 대한 일고찰: ‘침-(寒)>춤-’ 및 존재사 ‘잇/이시-(有)>있-’의 중간단계 설정을 중심으로, 《2016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23-186.
- 허웅(1965), 《國語音韻學》, 正音社.
- 허웅(1982ㄱ), 19세기 국어 때매김법 연구, 《한글》 177, 한글학회, 3-38.
- 허웅(1982ㄴ), 한국말 때매김법의 걸어온 발자취, 《한글》 178, 한글학회, 3-51.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Ⅰ)》, 태학사.
-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7-1995), 《韓國方言資料集 Ⅰ-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編(1963), 《隣語大方》, 京都大學國文學會.
- Bybee, Joan 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Philadelphia: J. Benjamins [이성하·구현정 역(2000), 《형태론: 의미-형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 Hock, Hans Henrich(1991),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2nd ed.), New York: Mouton de Gruyter.

292 國語學 第85輯(2018. 3.)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2-3290-1960

E-mail: crudwo@korea.ac.kr

투고 일자: 2018. 02. 19.

심사 일자: 2018. 02. 23.

게재 확정 일자: 2018. 03. 09.

Morphophonemic Changes in the Paradigm of {issda}

[Chung, Kyeong-Jae]

{있다}의 활용 양상 변화 고찰 [정경재]

This paper examined the morphophonemic changes in the paradigm of {issda} and aimed to identify the process, period and cause of change. The Korean verb {issda} was conjugated in irregular forms such as “isgo”, “isini” or “isyeo” in the fifteenth century. In the Modern Korean, {issda} went through changes in its consonants and vowels before adopting a regular system, as “isini” changed to “isseuni” and “isyeo” changed to “isseo”. This paper conducted a complete enumeration of the usage of {issda} in books and documents from the eighteenth century, and found that vowel changes preceded the changes in the consonants. This study identified the “contamination” originating from the antonym {ebsda} as the cause of the consonant changes. As the vowels in {issda} changed, the conjugated forms of {issda} and {ebsda} became similar, which resulted in the contamination. This paper suggested a few possible causes that led to the change in the vowels. This researcher expects this issue to be clarified through more precise research on the historical phonology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future.

Key words: *issda*, *ebsda*, *-eoss-*, *-gess-*, paradigmatic leveling, contamination, irregular conjugation

